

공 개



의안번호	제 37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 27. (제 2 차)

의
결
사
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1. 27.

1. 의결주문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지주회사소속이 아닌 국내은행의 배당 등 자본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 능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배당 등 자본의 대외유출을 예년보다 축소토록 권고할 필요

3. 주요골자

‘21.6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 등 자본의 대외유출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함.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경기침체 지속(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정책금융기관은 권고대상에서 제외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1. 필요성

- ☐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은 현재까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장기회복(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법규상 규제비율*을 상회
 - * 배당제한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D-SIB 기준)
- ☐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다수 은행의 자본비율이 배당제한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시 은행이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
-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배당을 예년보다 축소할 필요

2. 권고안

- ☐ (권고내용)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
 -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 (적용대상)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

○ 다만,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은 권고대상에서 제외

* 정부가 손실을 보전

☐ (적용기한) '21.6월말까지

※ 본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 가능

관 계 법 규

【 금융규제 운영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734호]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지주회사법 】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
- 가. 은행지주회사

-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2(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시스템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1. 규모
2. 상호연계성
3. 대체가능성
4. 복잡성
5. 국내 특수요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이하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

1. <별표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시스템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무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

<별표 3>

최소 준수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3. 2015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 비율
<u>4.5%</u>	<u>6.0%</u>	<u>8.0%</u>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u>$7.0\% + K$</u>	<u>$8.5\% + K$</u>	<u>$10.5\% + K$</u>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4>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제25조의2제3항 관련)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점수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600 미만	0.0%
<u>600 이상 1400 미만</u>	<u>1.0%</u>
1400 이상	2.0%

【 은행법 】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법시행령 】

제20조(경영지도기준 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2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가.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나.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다.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④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제26조의2(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시스템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인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1. <별표 2-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부과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율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은 선정 사실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별표 2-10>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단위 : %)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u>$7.0 + K$</u>	<u>$8.5 + K$</u>	<u>$10.5 + K$</u>

*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2-12>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제26조의2제4항 관련)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점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600 미만	0.0%
<u>600 이상 1400 미만</u>	<u>1.0%</u>
1400 이상	2.0%

【 한국산업은행법 】

제32조(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중소기업은행법 】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은행과	은행감독국
연락처	02-2100-2831 02-2100-2951	02-3145-8020